

- 전북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벤치마킹을 위한 -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계획

스페인의 문화관광 융합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 실정에 맞는 정책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정책 기획과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자 함

1 연수개요

- 기 간 : 2025. 9. 24.(수) ~ 10. 2.(목) / 7박 9일
- 연 수 국 : 스페인

방문도시	방문지역	비고
바르셀로나	가우디 유적, 카탈루냐 주의회,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바르셀로나 시의회, 라 마르세 축제	
마드리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마드리드 시의회	
몬세라트	몬세라트 수도원	
톨레도	톨레도 대성당, 산 후안 데 로스 레예스 수도원	

○ 인 원 : 11명

(총무담당관 4, 의사담당관 1, 입법정책담당관 1, 의정홍보담당관 1, 전문위원실 4)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 국외연수 대상자 명단은 『붙임1』 참조
- 연수단장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소요예산 : 42,141천원(예산지원 31,000천원+자부담 11,141천원)

- 세부산출내역 : 3,831,020원(숙박비+식비+일비+항공료+준비금)×11명 = 42,141,220원

※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 【(나)등급 지역】

\$=1,393.40원 기준(2025.08.22. 환율) ⇒ 세부산출내역은 『붙임2』 참조

○ 연수내용

- 스페인 주요도시의 문화·관광 및 종교문화유산 관리·운영 사례 조사
- 스페인 지방·광역의회의 제도와 운영사례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방향 연구
- 한글학교, 문화원 등 K-컬처를 홍보하는 기관 방문 및 글로벌 문화교류 전략 모색
-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 참여를 통한 축제 운영사례 조사 및 전북 접목 방안 발굴

2

연수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9.24)	전 주	04:00	· 전주 출발	
	인 천	11:05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스페인 (바르셀로나)	19:00	·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도착	
2일차 (9.25)	바르셀로나	10:00	· 가우디 유적 방문 - 문화유적 활용방안 체험	
3일차 (9.26)	몬세라트	08:00	· 몬세라트 수도원 등 방문 -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바르셀로나	17:45	· 카탈루냐 주의회 등 방문 - 지방(광역)의회 역사 및 기능 연구	
4일차 (9.27)	바르셀로나	11:00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및 한인회 방문 - 한국문화 확산 활용방안	
5일차 (9.28)	바르셀로나	11:00	· 바르셀로나 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 역사 및 역할 연구	
		18:00	· 라 마르세 축제 - 지역 대표 축제 체험	
6일차 (9.29)	바르셀로나	10:00	· 마드리드 이동	
	마드리드	15:00	·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 역사 및 역할 연구	
7일차 (9.30)	톨레도	08:00	· 톨레도 대성당 등 방문 -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마드리드	15:30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방문 - K-문화 및 전북문화 연계 방안	
8일차 (10.1)	마드리드	11:00	· 바르셀로나 이동	
	스페인 (바르셀로나)	21:00	·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출발	
9일차 (10.2)	인 천	16:4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전 주	21:00	· 전주 도착	

※ 연수일자 및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방문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스페인>

□ 일반현황

- 언어 : 스페인어·카탈루냐어 등 / 면적 : 506,030km²(세계 50위)
- 수도 : 마드리드 / 인구 : 약 4,932만명(2025.7월기준)
- GDP : 1조 5860억\$(2021, IMF)
- 기후 : 전반적으로 온대기후이나, 대부분 지역 지중해성 기후
- 종교 : 가톨릭 68.9%, 무종교 16.2%, 기독교 및 기타종교 14.9%

□ 주요 방문지 현황

<바르셀로나>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의 수도이자,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 지중해에 접해 있으며, 독특한 문화, 예술, 건축, 역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임. 특히,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가 만든 건축물을 통해 바르셀로나를 세계적인 예술 도시로 조성했습니다.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Sagrada Familia)」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성 가족 성당 혹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은 가우디의 최후의 걸작으로 꼽히며, 총 3개의 파사드(벽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사드에는 각 4개씩의 첨탑이 세워져 총 1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12 사도를 의미한다. 그 가운데는 가장 높은 첨탑이 세워질 예정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개의 파사드 중 우측 파사드는 가우디가 완성한 유일한 파사드로 **탄생의 파사드**라 불립니다. 그리고 좌측 파사드는 폴라 델 빌라르라는 건축가가 완성하였으며 **고난의 파사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면은 **영광의 파사드**로,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부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조명이 들어오며 마치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종교시설의 예술적인 건축물로 조성하여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형성하고 있습니다.**

○ 「구엘 공원(Park Güell)」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건축가 가우디의 친구이자 후원하던 귀족인 에우세비 구엘이 전원도시를 계획하여 만든 **구엘공원**은 원래 고급스러운 저택 등을 지어 분양하려 했으나, 위치가 언덕이고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바르셀로나 시의회(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을 사랑한 가우디답게 비가 오면 건물에서 비를 모아 기둥을 타고 저수장으로 물이 모여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는 정문 쪽의 분수대로 흐르게 설계되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넓은 모래 광장이 있고 주변으로는 쪼개진 타일로 만든 벤치가 있는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앉으면 굉장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화 실패한 주택단지를 지방정부에서 매입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카탈루냐 주의회(Parlament de Catalunya)」 * 기관방문



스페인의 17개 자치 지역(Comunidades Autónomas) 중 카탈루냐(Cataluña)의 자치권과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중세 시대부터 자치적인 정부를 유지했으며, 카탈루냐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보호받았습니다. 내전 및 독재정권으로 자치권이 제한받았다가, 1978년 스페인 헌법이 제정된 후, 카탈루냐는 자치 지역으로서 다시 자율적인 권한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1980년에는 카탈루냐 주의회가 재설립되어 카탈루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자치지역 내 법률 제정, 지방정부 감독, 자치정부 예산 승인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카탈루냐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주의 수도인 바르셀로나(Barcelona)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원은 총 135명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사함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지방분권의 방향과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Colegio Coreano de Barcelona)」 * 기관방문



바르셀로나 한글학교(Colegio Coreano de Barcelona)는 1991년 4월 6일 개교한 비영리 주 까탈루냐 사단법인(G60471067) 단체로 한국 문화와 까탈루냐(스페인) 문화라는 이중 문화 속에 성장하고 있는 까탈루냐 지역의 한국인 2세들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 2세들에게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언어를 올바르게 전수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자긍심을 길러 주고 원주민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 그리고 그 동안 짧은 시기에 가장 경제 발전을 이룩한 고국의 위상에 힘입어 K-POP과 같은 문화 및 예술도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 한국어인 한글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전북의 서예, 농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도 전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 「바르셀로나 시의회(Ajuntament de Barcelona)」 * 기관방문



카탈루냐(Cataluña) 자치지역의 수도인 바르셀로나의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으로, 시장,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 그리고 41명의 시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전체회의(Plenary, Consell Municipa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의회 건물은 고딕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전체회의(Full Council)는 시의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시 정책을 입안하고 감시합니다. 정부위원회(Comissió de Govern)는 시장, 부시장,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구로, 예산 승인과 도시 정책 실행을 담당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특별법인 Carta Municipal의 적용을 받아 교통·안전·도시계획 등의 권한이 확대된 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별법을 통해 확장된 자치권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광역 자치단체로 견학해보기 위함입니다.

○ 「라 마르세 축제(La Mercè Festival)」 * 현장참여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라 메르세 페스티벌(La Mercè Festival)은 바르셀로나의 수호성인인 '자비의 성모'(Our Lady of Mercy)를 기리며, 19세기부터 공식 도시 휴일로 지정되어 매년 개최되는 가을 최대 문화 축제입니다. 1687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성모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종교적 의식이 점차 대중문화 축제로 확대되었고, 1871년부터는 공식 축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거인 인형들의 행진과 카탈루냐 전통 무용, 인간 탐쌍기 공연, 폭죽 공연,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시 전체에서 즐기는 대규모 거리 축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통 예술과 종교문화 등을 융합한 도시 축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사료됩니다.

<마드리드>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16세기 펠리페 2세가 마드리드를 수도로 지정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왕궁, 대성당, 광장 등 스페인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스페인의 문화·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유럽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도시이기도 합니다.

○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 en España)」 * 기관방문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은 2011년 마드리드 중심부인 카스텔라나 거리(콜론 광장 인근)에 개원한 대한민국 공식 문화 홍보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KOCIS)에 소속되어 운영되며,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 문화적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강좌뿐만 아니라 서예, 한지 공예, 전통악기 체험, 바둑, K-Pop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강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과 스페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어 강좌나 K-Pop 활동이 특히 인기가 많아, 참여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호응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서예, 판소리 등 전통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마드리드 시의회(Ayuntamiento de Madrid)」 * 기관방문



마드리드 시의회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시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크게 의회(Pleno)와 집행기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57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되며, 도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맡는 입법적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세금을 결정하는 등 도시 운영 전반에 관한 핵심 정책을 논의합니다. 또한 의회는 시장을 선출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전북도의회도 도 차원의 의사결정과 집행부 견제를 맡지만, 마드리드처럼 지역구 단위 의회·구청장 제도를 참고한다면, 광역의회와 기초자치의회를 중간에서 잇는 지역 분권형 구조를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몬세라트>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 근교에 위치한 산과 수도원으로, 독특한 톱니 모양의 바위산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이며, 기독교 성지이자 세계 4대 성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종교, 문화,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 「몬세라트 수도원(Abadia de Montserrat)」 * 유네스코 세계유산



6만여 개의 해저 용기로 이루어진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수도원으로, 50년경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스페인의 성물 '점은 성모 마리아 상'이 보관되어 있기로 유명하다. 이 성상을 옮기려 했으나 그러지 못해 11세기경 이 자리에 수도원을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재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몬세라트 수도원과 성당은 신앙, 예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로, 전북에서도 4대 종교에 대한 주요 성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뛰어난 주변 자연경관 등이 있어 이를 활용한 종교문화 활성화 및 관광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톨레도> * 유네스코 세계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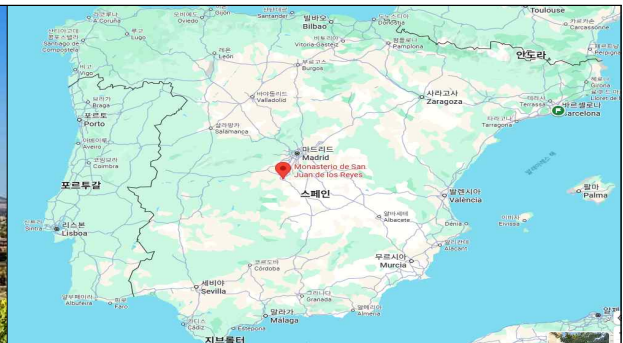
스페인 중부 카스티야라만차 자치구에 위치한 고도(古都)로, 타호 강이 도시를 감싸며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하고, 로마 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유적이 공존하는 곳으로 '세 종교의 도시'라 불리며, 도시 전체가 국립 기념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스페인 문화와 역사, 다양한 종교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로서, 톨레도는 스페인의 '시간이 멈춘 도시'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 「톨레도 대성당(Santa Iglesia Catedral Primada de Toledo)」



톨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카스티야라만차 지방 톨레도에 위치한 가톨릭 성당으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고딕 양식 건축물입니다. 1227년, 카스티야 왕 페르난도 3세 시절에 건설이 시작되어 약 270년의 긴 공사 끝에 1493년 완성되었습니다. 대성당의 길이는 120m, 폭은 59m에 이르며, 웅장한 5개의 나베(회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데하르 양식과 유대인의 회당공법이 섞여 있어 소리의 울림이 뛰어나고, 건축적으로도 독특하며, 종교적, 역사적, 예술적으로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산 후안 데 로스 레예스 수도원(Monasterio de San Juan de los Reyes)」



산 후안 데 로스 레예스 수도원은 스페인 톨레도 구도심 내 유대인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입니다. 1476년에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2세와 카스티야의 이사벨 1세가 자신들의 영면처이자 가톨릭 신앙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건축물로, 스페인의 역사와 종교적 의미가 깊게 담긴 장소입니다. 수도원의 건축은 고딕 양식과 무데하르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매우 독특하며,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스페인 중세 건축과 종교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① 주제 및 방문지 선정 회의 개최

- 기 간 : '25. 6. 2. ~ 6. 20. (4회)
- 방 문 지 : 스페인
- 주 제
 - 스페인의 자연·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례조사
 - 스페인 의회 구성, 주요 역사문화적 특징, 문화유산 정책 파악 등

② 방문지 관련 자료수집

- 기 간 : '25. 6. 23. ~ 8. 8.
- 대 상 : 바르셀로나, 몬세라토, 마드리드, 톨레도 등
- 방 법 : 외교부 및 스페인 관광청 자료검색, 관련 서적 및 타 기관 연수보고서 등 참고

③ 방문기관 섭외 및 협조 요청

- 일 시 : '25. 8. 1. ~ 진행중
- 대 상 : 카탈루냐 주의회,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바르셀로나 시의회,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마드리드 시의회 등
- 방 법 :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① 항공권 및 호텔예약

- 항공권 : 박동우 등 11명
(인천 → 바르셀로나(몬세라토) → 마드리드(톨레도) → 바르셀로나 → 인천)
- 호텔 : 미 정

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 일시 : '25. 8. 22.(금)
- 장소 : 도의회 처장실

③ 국외연수 방문기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일자 : '25. 8월 중
- 주요내용 : 방문기관 사전 협의 등

④ 국외연수 실시

- 기간 : '25. 9. 24.(수) ~ 10. 2(목) / 7박 9일
- 연수국 : 스페인

⑤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 기한 : '25. 11. 1일한(귀국 후 30일내 보고서 작성)

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결과보고

- 기한 : '25. 11. 8일한
- 내용 : 국외연수 결과보고 및 집행부 대안제시

- 건축유산과 종교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페인의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도내 역사·문화유산을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 스페인 주요 지방의회와 운영현황을 연구함으로써, 전북도의회 의정활동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 발굴
- 라 마르세(La Mercè)와 같은 대규모 도시축제의 운영 방식을 체험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전략 등 축제 운영 전반에서 전북 지역축제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발굴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와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등 현지 한국문화 홍보기관을 방문하여, K-컬처에 대한 확산과 글로벌 문화교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전북의 국제케이팝학교 및 전통문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홍보·교류 방안 강구

붙임 1

전북특별자치의회 사무처직원 국외연수 대상자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비고
1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4급	박 동 우	단장
2	총무담당관	행정6급	이 관 우	
3	총무담당관	행정6급	황 지 응	
4	총무담당관	행정7급	박 진 희	
5	총무담당관	운전7급	이 호 영	
6	의사담당관	속기8급	노 준 호	
7	입법정책담당관	행정6급	김 성 미	
8	의정홍보담당관	행정7급 (임기제)	함 훈 욱	
9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7급 (임기제)	윤 호 진	
10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시설6급	강 정 한	
11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행정6급	진 용 근	
	소계	11명	남9, 여2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5. 9. 24.(수) ~ 10. 2.(목) / 7박 9일
- 연수지역 : 스페인
- 연수인원 : 11명 (총무담당관 4, 의사담당관 1, 입법정책담당관 1, 의정홍보담당관 1, 전문위원실 4)

□ 소요예산(국외여비 지급기준)

- 소요예산액 : 42,141천원(예산지원 31,000천원/자부담 11,141천원)
- 세부산출내역 : 3,831,020원 × 11명 = 42,141,220원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소 계	3,831,029원	나등급 (원단위 절사)
일 비	· 30 \$ × 9일 × 1인 × 1,393.4원 = 376,218원	2025.08.22일자 환율(1 \$ → 1,393.40원)
숙박비 (할인정액)	· 137 \$ × 85% × 7박 × 1인 × 1,393.4원 = 1,135,830원	
식 비	· 59 \$ × 9일(23식) × 1인 × 1,416원 = 630,281원	기내식 4식 제외
운임료	· 국제항공선(왕복, tax, 유류할증료 포함) · 국내기차(왕복, tax 포함) 1,668,700원	항공료 1,513,500원 기차료 155,200원
준비금	· 여행자 보험 20,000원	